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58 성문교회 우:57995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smchurch>), (밴드: [순천성문교회](#))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63번째 이야기]

내 주의 길을 따라 걸은 때에 나 살아있네,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을 때에 나 자유하네
 내 거센 파도 그의 앞에서는 모두 잠잠하네, 이 높은 벽도 사랑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네
 주님 내 맘에 채워주시네, 그 넓은 은혜로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시네 그 사랑 놀라워~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열심과 그 기도가 날 위해 있네
 그 소망도 그 인내도 그 눈물도 그 기도도~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와 내 모든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그의 손길이 나를 품어와
 내 작은 삶도 이전과 같지 않게 날 인도하시네.('주의 사랑이' 찬양)

자전거로 떠나는 행복한 배낭여행~

남편과 심방하는 날을 제외하고 한주에 이들은 혼자 자전거 타고 교우들, 전도대상자, 혼자 사시는 분들 심방을 합니다. 어떤 날은 떡을 찌고 시원한 식혜를 만들고, 어떤 날은 과일 도시락과 반찬을 만들고, 어떤 날은 커피와 주전부리들을 챙겨서 배낭에 가득가득 넣어 메고 자전거 여행을 갑니다. 동서남북 흩어져 살고 계셔서 자전거 타는 시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들과 꽃들과 바람으로 힐링하며 달리니 힘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신이 있어 한분 한분 찾아뵙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제게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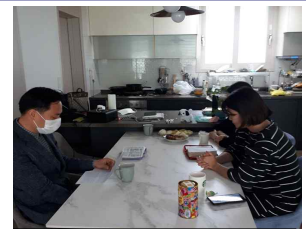
혼자 사시는 000 할아버지덕에

과일도시락과 식혜를 메고 갔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문앞에 간식 놓고 간단히 편지 써놓고 기도하고 골목을 나올 때 '내려가다가 할아버지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골목 코너를 돌았는데 할아버지가 걸어 올라오고 계셨다. 할렐루야~ 할아버지와 반갑게 인사하고 몇마디 나눈 뒤 다음에 올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몇번 찾아뵈던 어느날 대화끝에 할아버지는 복음을 받아드리시고 영접함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했다.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 교회에 발을 옮기지 않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 안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전도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때마다 그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 듣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대상자 000자매님

전도대상자 000자매님 데에 가서 이사 심방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문을 열어 예배드리는 동안 귀기울여 들으시니 감사했습니다. 예배후 간식 먹으면서 나눔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자매님과 아들이 매주 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수님 믿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술주정을 하는 남편

밤에 술주정을 하는 남편을 피해 자주 딸과 함께 교회로 피신 오시는 00자매님이 있습니다. 딸이 상처가 많아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녀가 예수님을 심장으로 만나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00형제와 이00자매

이00형제와 이00자매는 코로나19가 창궐 한뒤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1단계에 나오겠다, 백신이 나오면 나오겠다, 코로나가 모두 없어지면 나오겠다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우들 집에 가시고 나면 '교회도 가고싶고 목사님 사모님도 보고 싶어요~' 라며 함께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와서 한참을 앉아 이야기 하고 가면 힐링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들이 밴드로 실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그 마음 열어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서울에서 혼자 직장생활을 하고 내려온 00자매

서울에서 혼자 직장생활을 하고 내려온 00자매가 몇주 기간의 입교 교육을 받고 입교식을 했습니다. 세례교인이 된 그날 자매는 많은 감사제목을 쏟아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아르바이트로 힘들어서 주일에 잠을 이기지 못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밴드 실시간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 깨어 예배 드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과 성경 필사를 시작

성도님들과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고 손으로 말씀을 써 내려가며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을 얻어서 교우들의 삶이 변화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에 당장은 큰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렵니다.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우리가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넓은 은혜로 기꺼이 우리 손 잡아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어 한 발짝 내딛어봅니다,

[기도 제목]

1. 코로나19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좋아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 전도대상자들을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전도대상자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3.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과 교회학교 아이들 말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쯤부터 다시 말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4. 코로나로 인해 주일 통합예배로 다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집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5.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높은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건강 관리를 하는 중입니다. 치료를 받아서 많이 호전은 됐지만 여전히 관리를 해야 하는 몸 상태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피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